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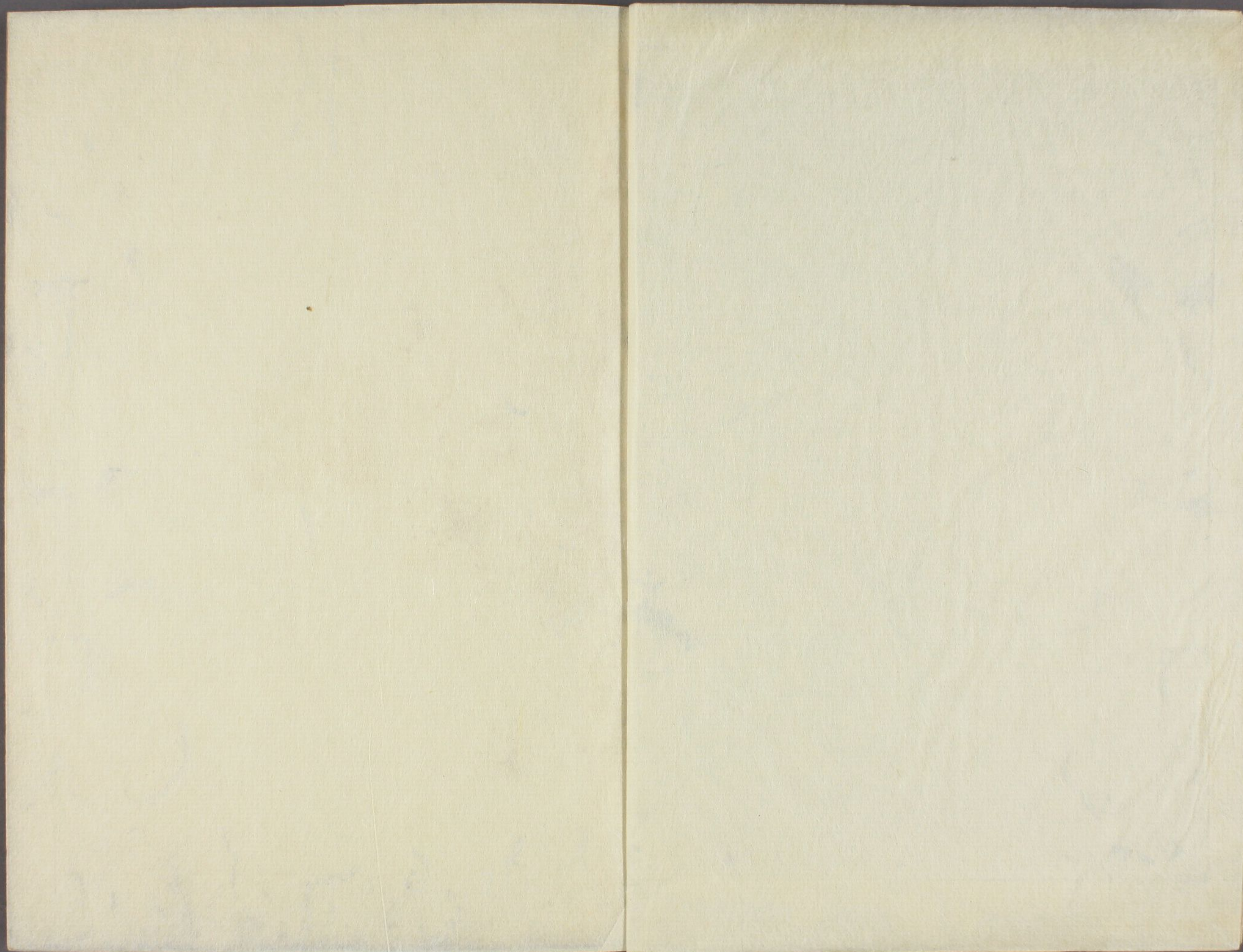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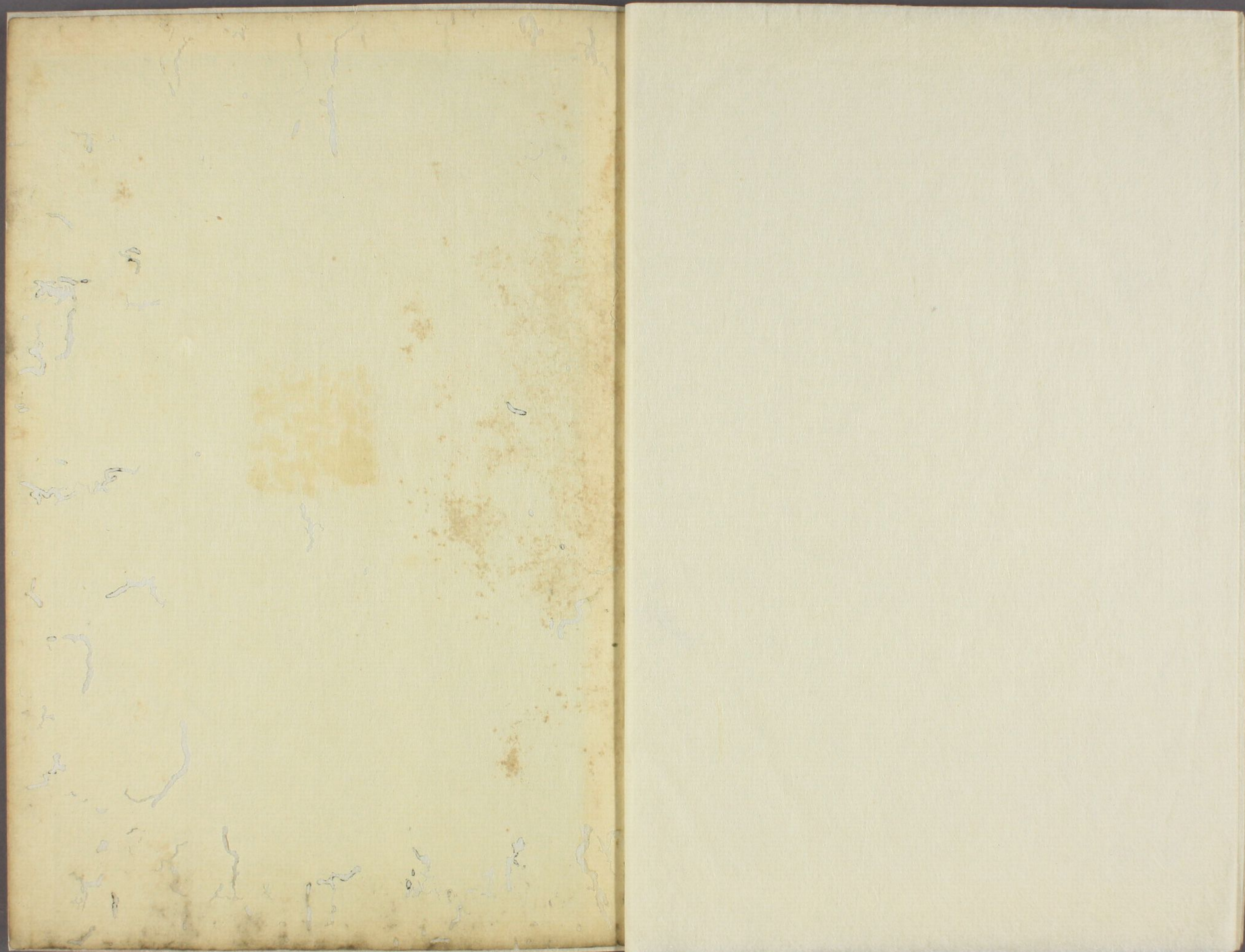
朝鮮語譯

劉詒

服部文庫
イ 17
2082
2







117
2082
2



오늘일은어이구리 何トシテアノ候ニ 率爾히호은고兩國間_カ
 事_ヲ을_ヲ館_ニ中_ニ의_ニ議_ヲ論_ヲ도_ヲ아_키고_고東_萊令_監口_口
 大_大로_로호_호는_는日_日付_付범_범사_사가_가되_되어_어任_任官_官서_서든_든그_그관_관일_일을_을館_館
 中_中의_의알_알게_게아_아나_나호_호시다_{시다}日_日本_本사_사금_금을_을薄_薄待_待호_호는_는
 口_口를_를하_하는_는고_고비_비로_로東_東萊_萊令_令監_監이_이여_여기_기일_일을_을모_모르_르
 시_시고_고그_그관_관네_네어_어는_는일_일을_을하_하는_는日_日付_付도_도任_任官_官의_의가_가마_마라_라시_시
 此_此等_等入_入テ_テコソ 尤テエガル處ニ 却_却る_る其_其內_內將_將과_과는_는同_同前_前이_이
 新_新鮮_鮮의_의지_지가_가셔_셔工_工標_標米_米을_을세_세워_워기_기는_는兩_兩國_國間_間無_無事_事호_호
 是_是等_等의_의부_부러_러일_일을_을내_내자_자호_호는_는일_일이_이가_가시_시크_크외_외아_아번_번의_의不_不

意에 의함이 일사 작이기는 아마 피이후라 若日

本사음이 보절업기 일리나가적 作하거나호

은 일의이식면 館의하그스연을호시기 道理에

불호려니와 不時의 館中의 의논도 악호고

禁標木박어 卽로이 푸르시는 許시 막당치아나호

나부치이 후라 박지아 卽시 호호소

호신말함은 火호을사외다 우리 訓導 別佐

가미리 아호가는 令호스오면 지 館中의 議論을

악호오리잇가 마는 오호 開市 裨將이 本府 令 監分付

을맛다습다가 적과 같나심시 卽우리호려호여 호호

호호매즉시 傳語 官호지 호호와 다들 議論호여

잇습스시예그 裨將이 卽셔사셔의나 호호리호

우아지 못호여 우리도 卽시나 호습다가 그 內 裨

將의게 이런일은 館中의 호호년의논치아호여호

박지 못호리호고도 호호잇는초의 日本사음들이다

호호그 標木은 卽지아호고거지 두어호스오나 來日

東호호을다가 호호우연호시 卽집게 호호리다

此(中)은 卽(口)호호호호호 卽(口)호호호

存初より居る事と申すは、館にお禮
仕立居る事と申すは、今迄市内禪将が東
萊と云付候事と申すは、所と申すは、場不
可申すは、此中法合候事と申すは、内
禪将の居る草梁項、所と申すは、此中を
我と申すは、所と申すは、内禪将の居る
事と申すは、館一通にお禮候事と申すは、
此中申すは、所と申すは、館にお禮候事
館にお禮候事と申すは、所と申すは、館にお禮候事

て、此中申すは、所と申すは、館にお禮候事
東萊、此中申すは、所と申すは、館にお禮候事
館にお禮候事と申すは、所と申すは、館にお禮候事

우리 들은 드려 오신 것 다 큰 일 일 이 악 라 歲
前부터 傳語官까지 큰 일 일 이 악 라 歲
로 본府으로서 우리 들의 傳令하시어 이런 사연이
나오신 旨자 왔습서 이 부분의 館守留館之限이
三十一朔이 온디 近來는 瓜滿을 (多스)치오지 못하여, 마라
가 首서 前例에 어러로 지 旨고 었더니 四十朔이

무가신館守도잇스유니 글로보함다가는더구나이전과
다른^{三十二}며三十六朔이라호는일은本府騰錄의도分明
호는되至於近來호는期限을^{三十二日}지악아나호고
그라가습시되이현의도前例를외유지못호는아니
막습다가自然히謬例되即今이관슈도호는則
限을기주라지악호고適歸호려호는가시르어그
못호를즐을호고兩國間일은依約條호는것아호는
일이유그스연을差備出使호는가지로드러가서議
論호려호고分付호는어트리왔습시이다^{이러}일이호는

뜻은東萊釜山令監으로니극외도交遊호는하셔兩國
國間일에니이 지 못호는어고凡事어것난일이
안스노니東萊令監저셔도慶尙監司호는되그리
兩國間일을主官호는신어문이르로그라가시는前
시彼此에非便호는해그리東萊府使을仍任호는
게셔을으로셔호는고館守도亦是그리호는유그
스연을뒤아슈의奇別호는라호고닐러왔스와의리
傳令호는신일이호는어관슈가호는여기호는어무남
서기호는어려외호는습시려아는以前의對馬州의慶

かすして清考、必は傳説あり、たまた
は、この一節、例と語、一は、まじく、のち、ま
せい、ぐ、自然、と、何、れ、ま、り、し、例、に、あ、ま、し、て
當、館、守、と、亦、胡、混、と、は、待、あ、く、は、ち、た、た
ま、し、や、し、ら、ぬ、さ、う、か、語、に、た、た、誰、成、誤、と、傳
高、玉、同、く、後、を、約、あ、く、通、に、傳、ま、す、か、う、お、り、り
よ、り、ま、語、と、混、走、利、変、同、化、入、館、誤、と、傳
仕、ま、す、ら、た、た、ふ、さ、り、付、ま、す、た、た、入、く、ま、り、ま、し、て
は、た、ん、や、物、ら、及、た、な、存、ら、ね、ま、す、り、心、も、東、葉、

釜山といふ中、ま、り、て、後、村、と、交代、に、及、ま、し、て、い
ち、高、玉、同、く、事、に、熱、に、傳、ら、ま、せ、ぬ、ご、語、事、に、
違、ひ、は、誤、が、多、く、は、た、り、ま、す、ら、た、は、東、葉、
慶、尚、を、し、視、察、に、た、た、行、ま、す、た、た、天、正、に、始、ま、る、
向、い、後、と、は、同、ま、す、ら、た、は、た、た、は、た、た、知、る、
ま、す、ら、た、後、に、双、方、し、は、た、た、ま、り、ま、せ、ぬ、た、た、ら、ん、
東、葉、府、使、り、五、に、は、勤、ま、す、ら、た、た、た、表、た、た、に、
付、ま、り、て、館、中、に、又、ま、り、通、に、事、に、た、た、と、對、州、
中、ま、り、た、た、た、た、た、た、た、た、た、た、た、た、た、た、た、た、

本館守汎滿朔
 數는이전외비록아문안어우후나
 到此近來호호
 년호여二十餘朔으로라^가을센아나라나도이
 의汎滿되어시어新館守도하아나을듯호우나本
 府即令호여는本府傳令은 나외實狀件을件
 날리외도^{아나카나}호여 일이어口는規外예어무지못
 호호^한의^트외^그리^호거나外東萊令監이分明호
 일이잇^외셔그리호사^가시^트후나^그約條定호

호호

호신말호은^스시^트릿^호거나外館守汎滿朔
 數는이전외비록아문안어우후나
 到此近來호호
 년호여二十餘朔으로라^가을센아나라나도이
 의汎滿되어시어新館守도하아나을듯호우나本
 府即令호여는本府傳令은 나외實狀件을件
 날리외도^{아나카나}호여 일이어口는規外예어무지못
 호호^한의^트외^그리^호거나外東萊令監이分明호
 일이잇^외셔그리호사^가시^트후나^그約條定호

은分明云. 은거나잇거슨新館守나은후에의논
후의묘비보소비류이전의三十六朔或罕餘朔
어무는일이이셔어무는일이음치우리라도對馬
島의셔아모일이이셔나그적이셔竣事후어노
라후셔나후大端호公幹이이셔몸을버셔지못
후를지경이연三年아나라十年이라도어물러가
게되여셔나후두번그런일이잇다사아그를가
지고例사물것도악보후이제三十六朔으로定호
여도島中의마지못후일이잇거나무엇후셔나

호연호二三朔안의도그라가게되엇스어그연은
本府令監외저시호시고브디그리체로이구르시
지아나게호首소호일이잇습시

望志也以上ハ垂細開事ナリ夫館守交代
月數ハ以前館令逗留爲事トナリトナリ
至事ハハ續ク二十條ノ月言事爲ルナリ
茲以テハ其移事已ニ交代ナリナリ
茲後守ト名年返ク事ナリトナリナリ
昨今ハ成事ナリ東業ハ傳令ハ相至事ナリ

春々の中集つたてにていこうして事には先らぬ
交銀の運るにあらぬと云ふなり
東萊にて候事柄の先つて左様にて
まうらうのより平約ある定申したる
おのづかしく候へば新館守に候へり
お徳しと見えり候へば前々三十
六月四拾四ヶ月運るに候事柄は
とからば申とて対運る候事柄は
つて運る候事柄は

對州々ごとくは事柄は
海峯州々ごとく候事柄は
四座つとて候事柄は
年々相違十子にて運る候事柄は
左様候事柄は
弟とて候事柄は
とて對州々候事柄は
是れ二三月候事柄は
候事柄は

原かまふふいりしりぬ抄さしりれ事か
ひ清法序の

이변의備邊司朝廷으로月千萬意外의本
府의關文이느려外東萊令監이우리들의게
傳令으로分府하시매그年을벗더었습시
이과上年御使하던사름이慶尚道沿邑仁지
巡歷하다가석우의도라간후各處일記錄
여나라알외남는중日本비부러左右道の漂到
하물쁜악라병드릿다비름이사유다하고退托

不發하여여러날어무는더게이실伺안은糧饌을
連給하기예어무는가시프후日後日本비左右道
의漂泊하여도糧饌을五日을限하여주고고
外에는주지악하연후스오리이다옛즈으니나라
히을히녀기사그대로시형하라하고一邊東萊
府의도관문하시고各海邑이도分府가잇스
이스연을오슬館守비고하개하옛습시
之度備邊司思考하東萊、關文가
系考、東萊、我、傳令といふ付多志

乃在兵部と軍してりありた去る清使と勤
らてきた人が慶尚及び海邊とて廻らむ
まゝと教へ給ふれりてから又て書載
は政公儀の中よらてきた内りか人が然と云
漂流政の女ありて病字と云ふ風が西の
中へ何角とて付けし所と云ふ毎日没途
留まし所とて居まふ内りありて連絡
政まふ所在逗留仕まふと云ふ程に向後日か
船もたれたるに漂ふ仕まふと糧饗と五日

限とて一ありぬといふと申すに宜敷く
申すやとて申すにたにわが所はとて
は島石を通に流すまふ所は一方の東
関文書に海邊とて中付が所なりた
此後今り館を掛し月をわく存する
えりてしきやけ別とて言ふにや言ふに
に言ふにだんといふに第二三船加料事
け言ふに外にけしにたはともす言ふに
て言ふにたは言ふにたは言ふにたは

船加料改지아자하는는三船이제몸이病患이
이외進上宴하고上船宴이兩宴의뜻참예하기
로제人事을상망하여그리하는일이유任官식
도이제란시비업시하야도흔가하구미이다
只今手紙と申す御事と申す故事は不
入館の事と申すは中に入ります別及不
は所ぬ第三三船加料の事御事と申すは
是程如きは又何の事なる中く後人
之が如く我の故費と申すは進上の事

三船加料法は申すは御事と申すは三船
と申すは病の事と申すは御事と申すは
宴におかぬ事と申すは御事と申すは
くそ通に及ました事と申すは御事と申すは
申今では何角と申すは御事と申すは
ことと申すは御事と申すは
今日申すは御事と申すは御事と申すは
우리여기오은전의通事를보내엇더니이처
여기아나오는가시르외다第一船二船加料事는

대되 념녀 ㅎ혀 제사지 ㅎ여 주신일이 매감부
ㅎ습거든 어이 거가 셔보채 제 ㅎ으리 잇가 마는
第一船都船主의 제 手形 ㅎ키는 일 후의 他送使
의 제例 삼지 ㅎ 제 ㅎ은 일 이 노 第三船의 手記
ㅎ기도 病이 이 셔 兩巡의 나지 못 ㅎ여 시나 일로 後
의 예 삼지 알라 ㅎ고 ㅎ여 주었습더나 어 제 第三
船役人 이 셔 什 格軍 四十名 加料 ㅈ은 갈라 ㅎ으매
ㄴ 對答 ㅎ되 두 곳 디 格軍 加料 ㅈ은 주게 ㅎ은 거
시 ㅎ으 노 三船 나지 못 ㅎ기로 거기 屬 ㅎ는 格軍 加料 ㅈ은
바 들 ㅎ아 나 라 ㅎ고 ㅎ을 리 보내 여 시나 傳語 官의

는 이 거 습 주 어 야 울 라 ㅎ시 습 ㅎ고 第三船 加料
는 代官의 ㅎ어 주게 通事부 ㅎ습 거나 와 아 모
리 성 각 ㅎ여 도 三船이 거 이 참 예 못 ㅎ였 기 로 加
料 ㅎ 맛 ㅈ을 ㅈ은 格軍 주 울 일 이 업 습 ㅎ은 두
ㅎ위 나 이 일 은 아 아 役人 들 이 의 소 로 ㅎ는 가 ㅎ여 그
리 ㅎ였 습 거나 와 어 지 ㅎ여 ㅈ 습 습 고 우리 가 나
ㅎ는 訓別 이 ㅎ는 알 이 라 도 더 무 리 번 는 것 인 앙
ㅎ여 이 리 ㅎ는 습

三船이 나지 못 하기로 거기 속은 格軍 加料는 주게 하은 거
바 들 ㅎ아 나 라 ㅎ고 ㅎ을 리 보내 여 시나 傳語 官의

客許ハ余ト申テ前ニ過キトモキニテモ
 是、余ト申テぬルハ、是ノ所ト申テ第一船二船
 カ料、第一船中、中ノ所ニ入リ、一トモノ
 一トモノ所ト申テ、余ト申テ、何トモ
 許、余ト申テ、余ト申テ、余ト申テ、余ト申テ
 第一船、第一船ト申テ、向テ、他ト
 送、彼、例ニ、任、ト申テ、取、ト申テ、取、ト申テ
 第三船、第三船ト申テ、初、初ト申テ、初ト申テ、初ト申テ
 二、二ト申テ、二ト申テ、二ト申テ、二ト申テ

事、事ト申テ、事ト申テ、事ト申テ、事ト申テ
 書、書ト申テ、書ト申テ、書ト申テ、書ト申テ
 取、取ト申テ、取ト申テ、取ト申テ、取ト申テ
 初、初ト申テ、初ト申テ、初ト申テ、初ト申テ
 一、一ト申テ、一ト申テ、一ト申テ、一ト申テ
 か、かト申テ、かト申テ、かト申テ、かト申テ
 水、水ト申テ、水ト申テ、水ト申テ、水ト申テ
 一、一ト申テ、一ト申テ、一ト申テ、一ト申テ
 と、とト申テ、とト申テ、とト申テ、とト申テ

官方、借りてきた中4の物、通年きり
 だまはれ何とる管收にまゝに三船がこ
 富ておかし解るなりう、此れもあまぬ
 八舟まゝ中4の管収と、此れもぬ折に
 中4舟此多をわらふに、保人として
 事と、以て中4の事と、府中へまゝ
 中舟、此れ九舟と、取らるるに、此れ舟
 とも、御こと、負ふに、訓別か、一斗と
 余計にまぢひまぢひ、難儀、の、おぼるる

中4の物

二三船格軍米 일은 거번의 처관의 처우 리들이
 아나그리 하엿습는고앗가도 하은대로 三船加料도바
 들거시오되 人事 所在로 약 배즈는거니와 이 三
 船이 그저 잇시연 엿지 잔알이며 第一二船이 열
 二日지을다바차 하연어 하시 불고거번의 三船
 을 제는 이틀지 의 하심을 처와 드리 마약 하시
 4日지 가그를 이틀지 벗고 또그 이틀지 의 처 三船
 正官加料을 除하게 하습고 우리들은 一日本 리만 일

傳語官出 뜻이亦是그리하시고根本曲在在我官의
 事어이 할을 고주금生銅看品일로公幹二代官분과
 가오매그별도할기부어부어게하느려나와生銅함음
 을엇배스지못할유그리구령이어스외함음이過
 限ハスキテ愆期하기로할여감영의色吏을잡어가을
 恨악과우리任官拿來할소문이先声이잇스유
 그말이칭말이오연그리말함일이어이잇스을고
 아모거나拿命이느려부지알전의비가와서生銅이나
 오연나형이할을가할음의전어과내도代官내부시

연우리들이인말하시오연을할여주음소

若くは清く濁くも其の道に違はずは其の道に在り
 方よりたおまいたれまはれまはれまはれまはれまはれ
 看るるも其の道に違はずは其の道に在り
 一に借しつゝなれらるるは其の道に在り
 品と令をいひしは其の道に在り
 此疾るも其の道に在り
 大魚を色吏と捕りしは其の道に在り
 捕へしは其の道に在り

弟が書ふ所の成をり振ふ難波を多々
序りたる也何れも病がりまはたし
まふるもはに病るも者なりは代官
に成途
かやうたらむ難波は多々
まはたし
まはたし

별처일이 이그리니 놀나는일이 업스외 무슨병으로
그리意外의 상스니 습년 지우리 듯즈와 신스합지아
나하여 씩웃스외 다분히 別世하신사름일이야이제
니를러브절업사스니 되별처가 열리의 방의 것이 다가

天喪을 막나시나 그情裡을 생각하오면 不祥하야 말
이나지악하외 이다 주시울라 가려하시 업스니 가
成服지낸후에 올라 가려하시 업스니 가 脫喪前의
는 못외울가 더우불상하외 이다

別差는 후쿠板か醫入마타多々成務か如し
か病守るに板と風書に逢し字に如し
承りたる實らまらば成務か如し
序りまはたは多々成務か如し
今中く成くは立まるは別差に逢し如方は成

みく妻、多しをんれましたる、と見ゆるま
すまはむいお、言詞、おまをぬ、
ら、のま、ま、ま、成服、
た後、
、
、
、

그리 후 외 별 처가 어 제 오 는 지 同 居 후 어 일 을 후 가 지
로 후 다 가 천 만 意 外 의 喪 事 奇 別 이 外 痛 哭 후 여
의 일 을 다 미 리 고 오 는 本 部 의 什 事 로 伺 나 그 禮 物

생 후 일 이 어 어 이 이 스 불 고 그 別 이 어 제 次 이 나 日 일
만 후 여 什 次 시 日 宴 廳 의 그 次 重 難 후 여 延 喪 罷
후 後 佐 以 所 庵 上 船 宴 일 을 依 托 후 여 더 모 禮 을 라 가 什 厥 兄
이 本 府 의 이 는 디 各 發 喪 후 는 가 시 어 더 후 日 기 로 후 가 지
로 후 라 가 次 후 고 후 日 別 次 는 그 次 什 日 밤 의 館 守 의 什
過 飲 후 고 夜 深 후 여 나 가 오 어 아 次 別 라 후 고 아 나 가 禮
후 는 가 술 기 유 기 가 오 술 을 라 후 후 고 使 道 가 本 部
후 日 什 事 日 二 日 이 分 付 을 次 다 시 나 日 什 이 후 가 지 日 是
라 가 外 什 以 所 庵 宴 후 이 日 何 후 日 什 후 고 日 別 라 여

흔가지로 올라가셔게셔그말을發하니 망극한 형
상을어이다니 큰올고그리하여셔오는녀나올라가니
나도그두생인이셔나가는양이나보고느려오려오려
나여귀일이이점이다뒤에몬져나별하여느려오
왔습거나와져사름들형상을보으니하물생하여브
뒤도섬하여연기를平安히가소하고저연히눈물이나서
로말이나지않았녀니그사름도망극등우리는은
잠고브리몸이나平安히지내쇼나는이상등을보조하여
다시^{행수여}뒤집기를定지못할가시키라하고우르고게유니

별한가이가리느려오는기를히셔그하던말과그情意을
싱각하여馬上의셔흥자올여늦출고리외느려오
삼시그병환중세을드르니본디宿疾이잇는디친
월그몸을부터痢疾을어디初八日부터더우加
添하여초열후큰날의어스시다하노나아마六
十남인老人이痢疾을아래스노시며支撐치못하
시고어스노신가시프되그런不祥한일이어슴외분
셔업스외신사름이야어이할가아는그抱病한
別差가할어아님脫服도못하는디도큰상황을안

나하야아안기를을痛哭하여울기与保기어려늘
가야어念慮적지악호외이다

右指くは度々別差の帳の上と一回然る
まゝと法事と同指の事とあふ思ひは
妻にたががらりまゝて^痛病哭して之を許し
弟の法打控く今日の東葉の紅紙は
ほろくは指さむい事をはせり申也如そ
が唯の言ふは成まをやな申す時ふあ
たも元安大願く其事の中おまするが

誰成は度々と喜席お度まゝたは
又以耐度上船宴がはけははひ
何の足。東葉。は申すの取別。妻の
らま申すはめははせり申す取
申す中と別差の足。夜館守
を過分。夜深く帰すた
と申す申す申す申す申す申す
と申す申す申す申す申す申す
と申す申す申す申す申す申す

人乃々有る事は此の事か
 小の内 双方持支るは此の事か
 亦心通る持慰官中 誠は後伝する
 以て事する事は此の事か
 亦事する事は此の事か
 亦事する事は此の事か
 亦事する事は此の事か
 亦事する事は此の事か
 亦事する事は此の事か
 亦事する事は此の事か
 亦事する事は此の事か
 亦事する事は此の事か

亦事하다 후유심... 후유고그런말생한일이 어음
 사외이다 초생점은은무후유4日限도점... 갖가外
 사니為先 礼單茶礼 후날이나알고하후식 그리남
사이다
 듯릿서이다 밧지연외 연연 아흐련날드리게
 후습시고差備官의게 礼單茶礼 前의 相接 후는
 거시네부러후어오는구귀오매부티일주드리후
 계후습소上船宴도梁山仁지往復후여후신일이
 오매부테이리마르시해과자후신거시맛당도후
 남고우리도日限이臨迫치안전지내거시

道の志り一也たはし法庵明はる心庵
神こし口深に招請々まを為前、海寺
ろかよしはたる石橋原官、法招支る
きたつ次は二十三四坊此より内法庵なる
こまに及指してはるる否法友なる
まのこまに

여러날 스이 퇴 남지 못하엿습더니 평안히 계 남
시더니 잇가 우리 도어 제 萬松院 延 禧 後 東 萊 를
가 남다가 잇가 마로 관으로 드려 싣습서이다 여귀 상

船宴 일로 하여 어 제 宴 후 파 후 알외 노 나 스
도 싣서 하시기 을 노 싣도 일 주느려 노려 하다가 못하여
계 유 扶 病 하여 느려 와 서 노 싣 宴 후 은 계 유 무
스이 지내 유 서 일 佐느려 노 잔 알을 이 제 어 이 定
하 불고 불라 서 노 싣 맘이 나 보 와 서 對 答 하
아 하 고 그리 나 르 시 매 우리 들 도 심 히 르 브 와 전
디 지 못 하 무 使 道 行 次 하 신 후 逐 後 하 여 불
라 가 서 노 싣 잇 음 의 드려 가 디 엿 노 유 아 마 람
하 여 하 시 고 나 르 시 되 以 耐 庵 正 官 第 四 船 正 官 이

またたれ我のこまなほしきてこころも也
福大奇はくまわすたれうま出つてい
やまうま今朝あつて又入まし得て洋外
難後からしきして中まするを以所居正友
牙也船正官が追付時出たのしる所あつて
咳こし者お宴席と後まする要こまあふ
甲はまぬ後玉極多は度と在打後お様
は度りまする所癩瘰とほまして数日痛
まして明ると告別字向必後お度の取玉取り

飲食とよふはべりまをぬ取字力の洋水は
まの明ると格別字向必後お度の取玉
福と告振方、番細にまするといふ取玉
たよふは度りまする所癩瘰とほまして
計をいふあつてまする所癩瘰とほまして
をいふまする所癩瘰とほまして

仔細三つ合のいふうり日限と不過四五日の
合に生れんや合をいふうり日限と不過四五日の
合に生れんや合をいふうり日限と不過四五日の
合に生れんや合をいふうり日限と不過四五日の

東萊令監이 명황이 거시다 후유 沓 후위이라
 우리 日限이 迫頭지아니 후를 양궁소오면나아신 양
 이나보고 후자 후련아는 日限이 거의 者기게 되엿소니
 이런인 迫후일이 어부외 현안 못후는 노로서오나 이
 劑病患少습시기를 기드르리자 후유는 貴國弊
 尤적지악 후를 거시오任官이도인 양후실가신스오
 니 이제 변동후고져 후오되 이런規外일은 館守
 의도 議論후야 후를 거시니 이제 의논후여 뒤
 답 후게 후습서이하 議論合當후야 杜恭으로 후

기되면연행은 스오날의 후게 후엿소우 그리아 습소
 앓가 役人 알을 드르니 陸物未收도잇소을 쓴아
 니라아직 費를 하후실것도잇다 후유 비록스오날
 定후사아일을 못지 못후어는 寔후은 못후게
 후엿소오니 습소나 가시면그후는 놉들게도미
 及나 후습소

委細承^마
 所^기 亦^우 眞^신 席^적
 返^반 事^사 且^구 向^향
 待^대 兼^겸 處^처 爲^爲
 候^후 兼^겸 處^처 爲^爲

重、存ますは東萊治病字と法匠と
尋常存ます所種、日限が迫りまをぬき
法匠と法匠字試又金まりて法匠と
中まをうあれた日限が既、満ますより
よりして法匠を連悲なるもの存ぬ
かより成まをぬ然るに法匠と法匠字
病字は法匠と法匠と法匠と法匠と
し聲としかかりますより法匠と法匠と
しやまよりあやなますより法匠と法匠と

度なますまは法匠と法匠と法匠と
相説た法匠と法匠と法匠と法匠と
お説して法匠と法匠と法匠と法匠と
掃む法匠と法匠と法匠と法匠と
法匠と法匠と法匠と法匠と法匠と
前役人た、法匠と法匠と法匠と法匠と
収着四度もの法匠と法匠と法匠と法匠と
物と法匠と法匠と法匠と法匠と法匠と
かすく法事お説ませしむる宴席と

如きする事は程今より掃う事なる所
其節より者た之は門に於ては
이러비도노고고출도적으며가온디가^{은년}남노후는
거시다른일이악라茶禮後노래노매우리進上연
연일을을후실가기다려잇스라茶禮후잇지두서들
이나^(은키니스니)남도^{아모알도}악후시니正官겨남셔알고
적후시매이리형후잇습외進上宴後의宴후도
여러가지잇쇼어스므날의以耐庵上船宴지거시면
스므후큰날이나스므사후날중의우리진생연지거

계후남새이가고세날의후못후오면二十七日日백근
이들의무고후날이어모스오나任官의도슬러이리되
계후남노

夕格、多着治日養喚事^了宴、^{より}く^以應^すと
中^{より}の^名別^儀、^は生^りも^をね^茶禮^後、^久也^所の
取^封進^宴、^後と^に江^手の^如清^く居^ます、
申^上茶^禮政^事、^一二^三月、^迄申^上と^何れ
後^と云^ふ、^一等^一者^は如^く正^官に^法中^に成^られ^り
と^に江^手の^如清^く居^ます、^一進^上宴

詰問の以て知るべきに明に再發するや도로連하여
 고지내어주시드리와보급지 못하여 소이아
 기아잇스어 告還使의 初相接도고傳語官
 내도만가히밧음작고잇지外合더니意外의別
 差가곳기기로하여잇는날의 初相接도못호
 매호는成服지내고做差傳令을하시어 現身호
 고마로이리드라잇습거나外우리어아남기셔도
 同生이그리罷하시어그情^心境^境알리실각호면나
 도주시을라가셔뵈고위로호는하시子之道의

所當호되나과일을호잇다外셔아직^今준스으
 못호호매호는禮單茶禮나지내면告還使의고
 연을호어셔을라가려호습거나外스호셔못
 호를다호실호하시프호스니이런류려호일의어스외
 구호이어듯호를하시프호는가

中^中 儀^儀 席^席 許^許 以^以 宣^宣 席^席 其^其 所^所 爲^爲 何^何 以^以 爲^爲
 中^中 儀^儀 許^許 以^以 宣^宣 席^席 其^其 所^所 爲^爲 何^何 以^以 爲^爲
 中^中 儀^儀 許^許 以^以 宣^宣 席^席 其^其 所^所 爲^爲 何^何 以^以 爲^爲
 中^中 儀^儀 許^許 以^以 宣^宣 席^席 其^其 所^所 爲^爲 何^何 以^以 爲^爲

と仕りたる所、此の延川仕りたる事、大いなる事
二十日の所、所仕り、いふ所が、お返し、すすむ、こぼ
富許、宴席外、別、急な宴席、公は、所り
まぬ、所、二十三日、は、与、日、前納、が、は、所、り、
す、こ、より、難成、は、所、り、す、こ、上、東、業、よ、
亦、病、氣、が、お、り、り、す、こ、以、所、店、使、り、宴
享、こ、案、は、所、り、す、こ、日、六、日、の、召、病、氣、
と、見、け、く、所、の、す、こ、し、は、知、こ、中、上、す、す、り、物、
は、ま、せ、り、新、と、敏、こ、下、り、す、す、り、答、り、教、ふ、お

痛、す、こ、か、し、は、は、所、り、り、り、道、中、の、
は、事、多、り、す、こ、た、ま、を、治、り、所、り、り、
痛、字、が、再、發、好、く、又、并、終、る、痛、く、す、こ、
す、た、た、早、速、入、館、し、り、り、道、は、ま、い、り、
此、福、れ、け、け、成、す、た、た、造、是、は、こ、礼、り、法、
對、面、り、申、各、り、收、受、掛、り、同、ま、も、り、中、令、
ま、す、り、た、ま、り、こ、い、掛、り、り、り、り、別、差、が、
不、幸、に、途、ま、り、た、た、ま、り、り、り、り、約、束、り、白、り、
造、還、使、り、所、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

니는 또한 법의 일을 시작하는 후는始終이말과 같은
야彼此疑心이어삼국이러아니니큰셔도우리도어
현치아니生覺하는외일을시작하여二三年後自
然十萬兩式이나年被執을하는거시오아직은
北京物貨를첫히부터甲折被執하는이쉽지 못
한일이오買賣로니큰셔도彼執甲折式相約하는
는거기도리의應當한일이아우우너미시작
하는초년은出良이五萬兩則너모過하는너三
萬兩을爲先出給하는初年加數한연일이점차

로또하가을거시오원간銀貨출금하는기를人蔘
心付로하는거우出給한후에그良으로인심을
사노거나北京드러보하여白糸物貨사노거나일은
한가지우우리들이알헤아려白糸나人蔘이나
너히買得하여被執하여代官셔근심하는일을
을快히하고져하는나이를후는의出納이相
半하는거나이가은대다른년야어이잇는리
잇가되거셔로이리停當한후些少疑心이어삼
은後에야大事되는거나大節目안잡시고其

餘小節ニ関其レ何カ叶三ノ刑章旨立付

今度坊方控訴仕奉係第一候之館より浪也
公本之控物ヲ款合五百五三三ノ宛毎手おし下
まし乃之代にがまと持する亦五百ノ宛と
深く千貫目ノ年々之を至使にまつて
白糸ノ代ノ物と用意ノおひと正何すなり是に
買賣ノ向玉極に費後之を以所りすれ
ホク控訴候仕かりて費了前取候之を
以所りすれ又一度事仕候記しきて

う之浪詞が同之控訴に及つては坊方
疑はば所々ぬ法若うに之を留めてと
我之若御所ありてる旨取まして事と
始まして一二年々各自然とお母の宛宛を
歳々賣止と取まらば先之御物候と
初年々倍々賣め年々減り年々心易
まぬ買賣下がましては双方一倍の控
すなり極く減りぬる御物にたりまらば
廣り四ノ箇すれまぬ初年々出浪五百

을 거시어人蔘의 바시구년제문과대고감안히드르해구년人蔘 決斷고 못을 거시어 明年 爲始하여 秋冬 間仁디 限하여 買시안인스
리거든 땅만하여 오고 그리치아니면 人蔘 被執
을 아조 말게 官비 우리 서로 이리 官비는 말이
自然 京中과 松都의 가늘 뿐 약과 採蔘 處
仁지라 드 所聞이 流入하여 結단하고 人蔘 官비
적어 이스려 미애 有益은 道理되을 거시 官비 萬
一 鳴中의 急히 必을 해 이스외 別로 求買한 일
이 스을 지라 드고 스 數少한 거시 스애 根本人蔘

被執한 官비는 거시 大關節의 甚린 일 이 아나
오리 그리 아 스 有人 蔘을 秋冬 間仁디 드려 지
말게 官비시 연스 연 買賣가 有益한 일 이 이
심드지 드외

人蔘가 今年之秋 比는 去年 續く 程に 成りた
よると 去年 友之間と 下りく 糸く ぬかり
くと 不足な 後を 口序り する 人蔘
之價が 當り 極に 低く 中々 價り
とびを 取 後 付 け たり たり 人蔘

商賣之法してありぬるは清原らふ
よと明年の始まりて秋ありし間と限
まりて在候が萬一こがりまりたるは用
意ぬる業りありしは清原らふを人夢
被執にゆりしは根にゆりしは我の業か根
申す事か自然と云ふは古都やふ
まりたり計ふは清原らふ人夢よりま
すは変と此の清原が流風にすありて
極く人夢在候かおこがりまりて賣

買之益の有るを成すは萬一對州に
急に入ルキがは清原らふの清原らふ
事か五つや中まりてはまをわづの
弟くは清原らふの清原らふ人夢より
ありたり大根に拘りたり清原らふの清原らふ
ませぬよるは清原らふの清原らふ人夢
と秋ありしは清原らふの清原らふ人夢
自然に買賣しては清原らふの清原らふ
なまける

소형도문마로 드라 마르며 자식 가호영간의
일을 잘 하신가 삼어 그리 큰 칭아 남소
盲目宗門을 오스니 柳子者는 子評加
이러는 事代 然^續 志^續 たり 云々 こそ 柳子
ふまらんさーやが

